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12 Vol. 536

매일 엄마의 밥상 차려주는 정갈한 반찬가게 (주)엔젤푸드

Contents



테마이야기:
세계를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으며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06 따뜻한 말 한마디
해외취업, 국내취업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10 맞춤 솔루션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의 가능성을 확대하다
- 14 人 스토리
세계무대 속 당당한 나를 기대합니다
미국·일본 해외취업 준비생 김민지·이신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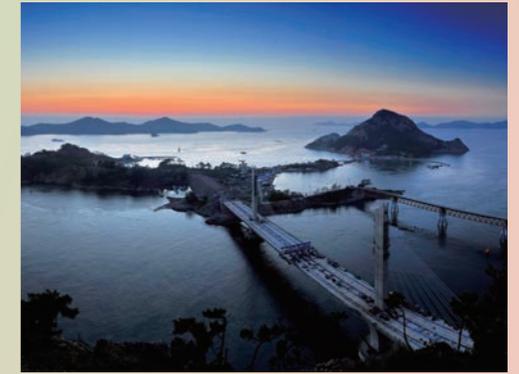
- 18 중장년 희망일터
금융맨에서 오페라 해설가 된 한형철 님
- 22 청년 불패
취업 향해 성실히 나아간 김용준 님
베트남에서 꿈의 닻을 올린 우정민 님
- 26 기술의 힘
시대를 읽고 새 길 발견하는 앞선 기술인
(주)이너트론 조학래 대표
- 30 정책 돋보기
우리 사회 고용 성평등 어디까지 왔니?
- 34 정책 수첩
조금은 마음 편히 취업준비하게 됐어요!
- 38 잡툰
2019년 미뤄둔 건강검진 받기
- 40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46 같이의 가치
정갈한 엄마표 반찬가게 (주)엔젤푸드
- 50 해피 투게더
함께 가는 일터, 더불어 맞는 행복 광주 첨단종합병원
- 54 하우투 워라벨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종합 정보보호 전문기업 (주)사이버원
- 58 노사형통
최고의 자부심, 노사 한마음으로 이뤄내다
롯데물산(주)
- 62 일자리 가이드
취업·일자리 박람회
- 64 내일 직업 사전
개인서비스 분야 新직업
- 68 SOS 고민 상담소
청소년 고용 시 유의 사항 외



여기생활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70 옛 직업을 찾아서
연탄배달부의 그때 그 시절
-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뭘 좋아하는 직장인의 연말연시 여행법
- 74 동ий業보감
수면장애
- 76 스마트 재테크
연말정산 파헤치기
- 78 내일스타그램
성실히 채워간 나의 2019년
-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12월호 <내일>
통권 강남 라00389(통권 536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준비부터 지원까지
해외취업에 대해
궁금한 취업생이라면?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지구촌 각 국가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고는 하나 막상 해외취업은 먼 타국에서의 생활이니만큼 꼼꼼하고도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 전문가의 도움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살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새 일자리를 찾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중장년 희망일터'에서는 직장 생활 중 시간이 날 때마다 공연을 보며 관심을 가졌던 오페라 분야의 해설가가 된 행복한 중장년을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새로운 직업을
탐색 중이라면?

오랜 기간 일터를 떠났던 이들에게 새로운 일, 직장은 그저 꿈만 같은 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뒤따른다면 취업에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내일 직업 사전'을 통해 도전해보세요.



2019년 12월 이야기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떤 것들로 채웠나요? 입사, 퇴사, 이직, 승진과 같은 일터에서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 일상에서의 기쁨, 슬픔, 행복, 실망 등 수많은 '일'들로 2019년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혹여 2019년이 맘에 들지 않았더라도 실망하기엔 이르지요. 365일 새날을 가득 담은 2020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다가오는 새해를 고대하며 부푼 희망으로 도전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 월간 <내일>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해외취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크고, 더 넓은 곳에서 활약을 고대하는 그들의 열정으로 올해 마지막 겨울을 함께 데워볼까요?

해외취업, 국내취업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해외취업센터
서성열 센터장의
조언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에 해외취업센터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센터는 이런 청년들에게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취업을 준비한 분들과의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해외취업을 위해 준비해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 서성열(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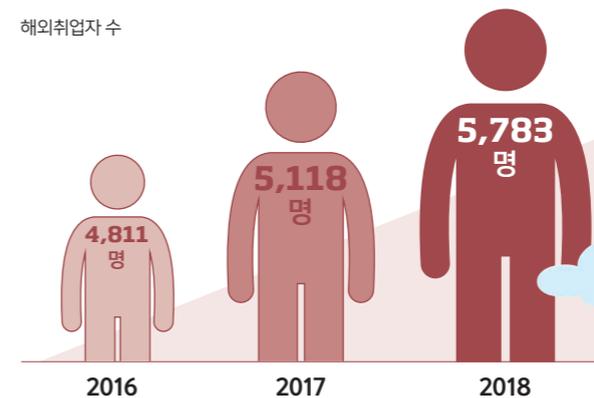
미국, 호주, 영국 등 북미·유럽의 선진국 선호



국내외 노동시장은 산업계의 구인 수요와 구직자의 공급 매칭으로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여러분이 직장을 찾을 때엔 급여, 근로조건, 근무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도 외국인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가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각각 해외취업 가능 국가와 유망직종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등 북미·유럽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진국은 자국민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비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독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간호·헬스케어 이연스, 사무·서비스, IT, 호텔 서비스 직종에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한 경우 다양한 취업비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글로벌 제조업 기지로 발돋움한 덕분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중간관리자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자 수





해외취업 준비 중 겪는 어려움들



많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면 해외취업을 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 등 오프라인 취업지원 거점들도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해외취업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통합 해외취업포털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의 운영과 더불어 전국 4개 시도(서울·부산 해외취업센터, 군산·통영 청년센터)에서 해외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기본적인 해외취업정보와 정보제공 행사 일정 등을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지 언어는 해외에 나가서 서서히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는 큰 착오입니다. 해외취업은 현지인들과 일자리를 경쟁한다고 생각하며 현지 언어 및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미흡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지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장기적 경력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내담자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행경험이 좋았다’, ‘짧게 체류해 보았는데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한국보다 살기가 좋았다’ 등 단편적인 기억에 의지해 결정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취업은 현지인과 동일하게 현지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 및 내재적 동기가 명확해야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역량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해외취업아카데미 또는 해외취업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킨 후 해외취업 플랫폼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알선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다양한 국가와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경쟁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멀리 높이 날기 위하여 청년들이 넓은 세계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서성열 센터장은 199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하여 현재는 해외취업국 부산해외취업센터장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지원을 위하여 라오스EPS센터, 키르기스스탄EPS센터 파견 근무, 국제개발협력 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의 가능성을

확대하다

해외취업으로
꿈의 지경을 넓히는
법과 제도

세계 곳곳에 광역통신망이 구축되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도 전 세계가 이를 동시에 공유할 만큼 시간과 거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 어디서든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해볼 기회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용기에 힘을 실는 법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

알짜 해외취업 정보 수집
**해외취업 박람회와
해외취업센터**



Q. 신뢰할 만한 해외취업 정보를 얻고 싶는데 해외취업 전문가를 만나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취업 박람회

인터넷에 떠도는 해외취업 관련 정보들 중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각 나라의 취업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더 없이 명확한 정보가 되겠지요. 각국 해외취업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해외취업 박람회입니다. 해외취업 박람회장에서는 글로벌기업의 일대일 현장면접, 주요 해외취업 국가 취업환경 설명회, 글로벌기업 채용설명회, 해외취업 멘토의 취업컨설팅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 박람회 일정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드잡플러스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추가해 해외취업 관련 행사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센터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전문가를 만나 상담 받고 맞춤형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외취업센터에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부산 해외취업센터, 군산·통영 청년센터 내에서 해외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든지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비자의 발급 절차,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능력, 해외취업 성공 사례 등 알아야 할 정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가 자신을 분석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해외취업 상담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Q.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영어 이력서와 영어 인터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K-Move스쿨 &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 후 해외취업까지 연계하는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취업 희망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직무능력, 생활·문화·교육 등 맞춤형 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해외취업아카데미'를 통해 매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약 1달에 걸쳐 진행되며, 어학능력과 준비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이력서 작성법, 영문 인터뷰, 원어민 모의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아카데미는 매달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니 월 드잡플러스 공지사항과 해외취업가이드의 '해외취업아카데미' 메뉴를 눈여겨 보시다가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외국회사의 주니어로 시작할 수 있는 한미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이 인턴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어학연수와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으로 현장 실무까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 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8개월 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K-Move스쿨

해외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Q. 해외취업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초기 정착금 등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 중 지원 조건과 취업인정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3차로 나누어 최대 400~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대 속 당당한 나를 기대합니다

미국·일본 해외취업 준비생 김민지·이신우 님



일 년에 두 번 대규모 해외취업의 기회가 되고 있는 글로벌일자리대전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지, 이신우 님은 이날 자신들이 지원한 기업의 현장 면접이 예정되어 살짝 긴장한 눈치인데요, 어릴 적부터 영어, 일어의 매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미국, 일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두 사람의 해외취업 도전기를 들어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

부모님 운영 카페에서 외국인 상대하며 해외취업 계획

국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김민지 님은 대학시절부터 영어권 국가로의 취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하면서 IELTS 점수를 끌어올렸고, 주말마다 영어스터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회화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영어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영문과를 가게 되었고요. 영어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니 영어라는 언어를 발판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경험도 쌓고 싶다는 생각에 3학년쯤 해외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지하철역사 내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해외취업을 도전하게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동대문역이다 보니 외국인 고객이

워낙 많아 자연스럽게 해외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며 판촉활동으로 쿠폰이나 타임 세일 등을 실시했을 때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마케팅 분야의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대행사 없이 스스로 영국 유학 알아보고
취업 준비**

석사과정을 통해 마케팅을 더 배우보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권 국가 중 석사과정이 가장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영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 3개월 동안 기업과의 프로젝트, 논문 제출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영어공부에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던 근성을 가진 만큼 도전해볼만한 일이었습니다. 유학 에이전시 없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준비해 유학을 떠난 김민지 님은 석사학위 과정을 무난히 마치고 올해 12월 졸업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영국 기업 몇 곳에 면접을 보았는데 학점과 교내 활동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적극성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해외취업을 준비한다면 학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민지 님은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국가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녀 자신도 영국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취업 정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최종 면접만을 남겨둔 기업이 있어 조만간 김민지 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중학생 시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일본어

중학교 외국어수업 시간에 듣게 된 일본어에 매료되어 그때부터 언어는 물론,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일본의 모든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신우 님은 일본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 취업을 꿈꿔왔기에 언어공부며 대학전공 등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진남’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과를 전공하고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주 외진 지방의 소도시였던 탓에 외국인도 거의 없고 상당히 일본다운 모습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외롭기도 했지만 덕분에 이제는 일본 어디에서 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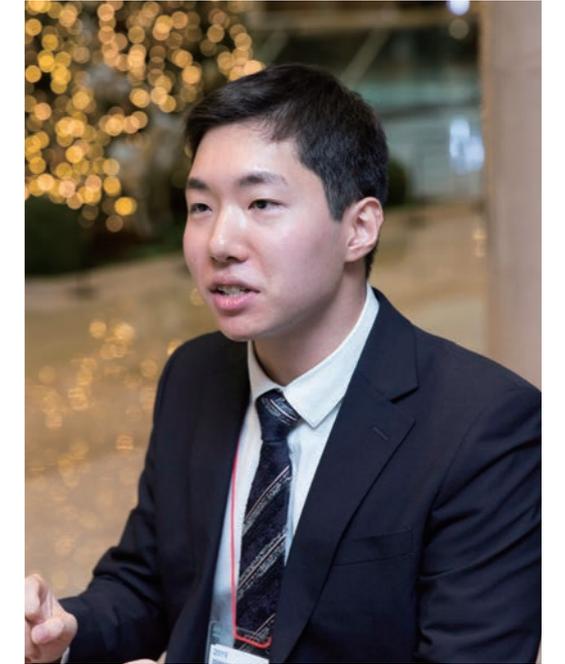
게 되더라도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우 님은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2개 기업의 면접을 순조롭게 마치고 꿈에 그리던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과 일에 마음이 들떠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대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다만 언어에 대한 부담은 있죠. 생활 회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업 현장은 또 다르잖아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때와는 분명 다를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영업직이라 조금이라도 서툴게 응대했다가 고객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언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에 주목하는 일본 기업들

오랫동안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오기도 했고, 교환학생 생활 그리고 몇 번의 기업 면접을 통해 이신우 님이 파악한 일본 기업 면접의 팁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업 담당자나 마찬가지로 찬가지겠지만 면접자의 대답에서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겠지요.



“면접에서 답변을 하다가 도중에, ‘しょうじき(솔직히)’라는 단어를 말하며 제 생각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심사자들이 고개를 들고 유심히 보더라고요. 매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직종 연구는 물론이겠고요.”

긴장을 해도 말이 술술 나올 만큼 일본어를 더 갈고 닦아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이신우 님의 눈빛에서 그가 말하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2020년 새해, 해외 어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김민지 님과 이신우 님의 모습이 환하게 그려집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 워런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안정까지 누리는 사람은 막상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금융권에서 인생 전반을 뛰었던 한형철 님은 은퇴 후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를 살려, 오페라 해설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한형철 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

20년 취미생활 은퇴 후 진로가 되다

금융맨에서 오페라 해설가 된
한형철 님



금융맨으로 퇴직 후
준비한 강사의 길

여기는 서울 도심권50플러스센터 강의실, 한형철 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실린 오페라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등 오페라의 주요 용어와 그 역할 등에 대해 쉬운 설명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들어왔던 오페라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그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쏟아지면서 강의실 분위기는 오페라의 절정처럼 한껏 고조됩니다.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오페라가 좋아 20여 년의 취미 생활로 즐긴 것이 전부라는 한형철 님의 강의는 그래서인지 더 친근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형철 님은 55세가 되던 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임금을 조절하여 5년간 더 은행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어차피 맞이할 퇴직이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맞이하여 다시 시작할 일을 도모해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준비를 해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상 나오긴 했지만 막막했지요. 퇴직한지 두 달 정도 지나 직장 내 경력컨설팅센터에 찾아가다가 노사발전재단의 금융특화전직준비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금융전문강사 준비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퇴직 후 진로로 금융 재테크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전문 강사에서
오페라 해설가로의 진로 방향 전환

금융권 종사자들은 퇴직 후 재테크 상담이나 은퇴설계 전문가,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한형철 님 역시 금융 관련 강사 양성 과정을 밟았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실제로 자신이 구성한 강의안을 가지고 직접 강의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수강생들과는 달리 한형철 님은 오페라를 소재로 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은행 재직 시절 2년여 동안 국립오페라단의 클럽오페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오페라를 해설해준 경험을 살려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페라 해설가로 선택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과처럼 금융전문 강사 준비로 평범한 길을 따르던 한형철 님은 강의 수요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나 은퇴설계 등을 주제로 한 강의는 수요에 비해 강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보통 1~2회의 강의로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강의할 곳을 직접 알아보고 발로 뛰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이 최고라는 생각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견인차 면허도 알아보고 수 개월간 목공도 배워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재미도 느꼈지만 혼자 공방에 틀어박혀 일해야 하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



“미래가 막막하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일단 노트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통하며 생활하여야 삶의 활력을 찾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한형철 님은 은행 재직 시절 취미로 했던 오페라 해설과 회원들의 호응을 떠올렸습니다. 그림 해설가인 도슨트, 숲해설사처럼 오페라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는 오페라 해설가는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음악평론가처럼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차원이 아닌, 오페라를 더욱 친숙하게 소개하는 역할로서 방향을 잡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자신의 인생3막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험 자산을 정리하면
명확해지는 나의 길

오페라 해설가가 되기로 방향은 정했지만 여전히 막막했다고 합니다. 오페라 애호가로서 즐거운 것과 오페라를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한 주제에 대해 일정한 시간을 꼭 채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한형철 님은 그동안 오페라를 관람자의 입장에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강의를 위해서는 정리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로그 만드는 법을 배워 차곡차곡 오페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쌓아갑니다. 이를 본 한 신문사의 요청으로 오페라 관련 연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경험 자산을 콘텐츠화 하였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난해부터는 성동구민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도심권, 영등포 등의 50플러스센터와 광진구, 구로구청의 강좌를 진행하며 제1호 오페라 해설가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들이 가진 풍성한 경험 자산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리된 자료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형철 님은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중장년에게 이를 극복한 한 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미래가 막막하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일단 노트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들을 적어나가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더 배워야 할 것들을 도출해가다보면 좀 더 쉽게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향한 성실한 한 걸음으로 목표를 이룬다



중국 유학길, 목표를 향한 하루하루

공과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김용준님은 군 제대 후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진로와 미래를 깊이 고민하던 중 한국의 많은 공장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보며 중국어를 배워 전공을 살릴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중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유학 전 대학일자리센터에 찾아가 상담했는데 유학에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HSK(중국어 능력 검정시험) 5급 이상 취득과 다양한 경험을 쌓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 있는 절강대학(浙江大學)으로 유학길에 오른 김용준님은 반드시 자신의 중국어 실력을 키워서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현지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 20여 개국 친구를 이끄는 반장도 자진했고, 반 친구들과의 수학여행도 기획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친구들과의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며 카페 아르바이트, 회사 인턴 근무 등으로 현지인과의 접촉 기회를 늘렸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HSK 5급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어 실력도 늘어 중국국가어유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공모전에도 입상하는 등의 성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주말에도 취업을 위한 준비

중국에서 돌아와 복학한 김용준님은 교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인 취업준비를 해나가는 방법을 익혔고 직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식스시그마BB, 품질경영기사(필기), ERP 시험, SMAT 등 직무나 전공과 관련한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단독으로 MOU를 체결해 시행하던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전략기획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업무처리, 사내 ERP 시스템 운용 등을 경험하며 실무 감각을 키웠고 간부회의에 참여하고 문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매주 두 번 이상 대학일자리센터에 나와 취업에 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주말에는 현직자들의 직무멘토링을 들으며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하고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김용준님은 대기업 인적성 평가 대비 특별준비반(4일 마스터 과정), 대기업 인적성 대비 집중 문제풀이 스터디(6회차 과정), [KJC Class 8 심화] 하반기 공채 면접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차근차근 취업에 대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김용준님의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키워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 채용 전환형 인턴에 지원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TIP

“김용준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취업 준비에 비용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문제집, 필기구 등을 지원받았고 인터넷 강의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도 얻어 안정적인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 전공
- 대기업 채용 전환형 인턴 근무 중

베트남, 기회의 땅에서 꿈의 땃을 올리다



뒤늦은 시작, 베트남 연수 결심

공부에 흥미가 없어 뒤늦게 들어가게 된 대학이었지만 졸업 후 준비 부족과 많은 나이로 취업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우정민님은 어릴 적 아버지와 다녀온 수많은 해외 경험과 교환학생의 경험을 살려 해외취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K-Move스쿨을 통해 베트남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전공이기도 했고 해외에서의 생활에 거부감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연수를 결심했습니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20명이 베트남 연수에 함께 가게 되어 한국에서 2개월간 직무교육과 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 드디어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된 우정민님은 낯선 현지에 적응하며 원어민 교수님의 베트남어 강의를 알아듣기 위해 노력했고 수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일주일에 2~3회 가량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 회화 수업을 하였습니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교수님들과는 다른 억양과 단어들을 사용하는 젊은 학생들의 베트남어는 또 다시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교과서처럼 말하는 학생은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베트남에서 일하게 되면 이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하니 젊은 친구들의 언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회화 수업이 두렵고 벽에 부딪힌 듯 답답한 기분이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 외출하면 거리의 말들이 조금씩 귀에 들리면서 베트남인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현지 적응 노력

베트남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 친구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며 베트남 가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 덕분에 베트남 문화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수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연수생들에게 베트남 취업 면접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우정민님 또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채를 준비하며 무수히 떨어졌지만 낙방은 역시나 스트레스였죠. 면접 스타일도 한국과 달라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더 공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준비해나갔습니다. 베트남어와 함께 영어도 필수였기 때문에 베트남어 수업이 끝나면 인터넷 수업과 온라인 교재로 영어학습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건강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타지에 나와 덥고 습한 기후, 석회성분이 함유된 물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연수생들과 저녁마다 줄넘기를 하는 등 건강관리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정민님은 연수가 끝나갈 무렵 다시 면접의 기회를 얻어 하노이 인근 박닌이라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조업 분야의 품질관리 업무로 고객의 시선으로 상품을 보며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준 베트남에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겨낼 것이라는 우정민님의 힘찬 다짐을 함께 응원합니다.



TIP

“우정민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2개월 배우기는 했지만 현지에서 다양한 발음과 억양으로 베트남어 수업을 들으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스스로 단어를 찾아가며 외웠던 것이 도움이 되어 오래지 않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K-Move스쿨 지원
- 베트남 박닌 소재 제조업체 품질관리 업무



기술로 시대를 읽고 기술로 세상을 발견하다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이너트론 조학래 대표

아무도 가지 않는 새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너트론 조학래 대표는 이런 낯선 길이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때론 막막하고 불안함도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는 용기, 그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조학래 대표가 있는 ㈜이너트론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사옥을 만든 이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이너트론의 사옥은 아름다운 외관으로 먼저 눈길을 끄는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어워드'에 선정됐을 만큼 인근에서도 눈에 띄는 멋진 사옥입니다. 사옥 입구에는 신진작가 미술품 거래 플랫폼인 아티스티와 협약을 맺고 갤러리로 만들어 신진 청년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커피머신이 구비된 1층 북카페, 서해와 인천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직원식당, 채광 좋은 사무실과 연구소 그리고 작업 공간 등이 기존의 공장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주)이너트론 조학래 대표는 새 사옥을 지으면서 기술인들이 일하는 환경을 바꿔보고자 지금의 사옥을 만들었습니다.

“남동공단에 있을 때는 여러 업체가 함께 쓰는 건물이라 회사 간판도 못 달았어요. 면접 보러 온 친구들이 회사 외관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기술인이라고 허름한 곳에서 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에 부지를 구하고 사옥을 지어 2017년 9월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환학생 시절

글로벌시장 경험하며 키운 꿈

2002년에 창립된 ㈜이너트론은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필터, TMA, 프런트 엔드 유닛(Front End Unit) 등을 개발하는 통신·설비·장비 제조기업입니다. ㈜이너트론을 이끌고 있는 조학래 대표는 47세의 젊은 경영인입니다. 대학 다니는 형이 있어 자신은 부모님께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선택했다는 그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기계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하여 3학년 여름방학에 취업을 나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2년간의 직장 생활 후 다시 대학에 진학해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3학년 2학기에 1년간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조학래 대표는 남은 학기를 마치고 3년 여의 직장생활을 한 후 30세 젊은 나이에 ㈜이너트론을 세웠습니다. 창립 이듬해인 2003년,

일본의 통신 부품 측정용 장비 제조사인 텍트로닉스에 4.2GHz 밴드 패스 필터를 성공적으로 개발·납품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는데,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자체 특허기술이 총 110여 건에 이를 만큼 기술개발에 쉼 없이 매진하며 적극적인 지식재산경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내에 개발된 기술로 자국 기업과 경쟁하기보다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조학래 대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통신 시장과 환경이 비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영업과 마케팅의 역량을 쏟아 부은 덕분에 2010년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500만 불 수출의 탑, 2012년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유럽의 글로벌 대기업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영역과 수출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 인재 경영으로

탄탄히 다져가는 회사 성장

3G, 4G, LTE를 묶는 멀티플렉서를 개발해 일본에 수출해왔던 ㈜이너트론은 최근 이 기술을 바탕으로 5G 신호까지 묶을 수 있는 멀티플렉서를 개발하여 다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주파수를 통합한 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혼변조신호 규격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품질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혼변조 신호 측정 장비로 ㈜이너트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디지털 변조(QPSK)를 사용한 900MHz 디지털 무선마이크 시스템 ‘보컬렉스’ 역시 ㈜이너트론의 기술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 중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작년부터 출시한 디지털 무선마이크 역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디지털 무선마이크는 독일 제품과 미국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기술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개발을 시작했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는 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수입산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제품이 나와 기대가 큼니다.”

조학래 대표는 한때 허름한 건물의 월세살이 임대 공장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지속적인 인재 육성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2018년 일학습병행 참여, 인천대·제주대·송실대에 연구 기자재 기부, 각 대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학금 제공 등을 통하여 회사에서 먼저 지원하고 키워서 채용하는 우수인재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것이 ㈜이너트론을 지금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기술인 조학래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기술인 또는 기능인을 꿈꾸는 후배들도 지금의 이 순간이 미래의 성공한 자신에게 자양분이 되는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오늘을 가치 있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기술인 조학래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고용 성평등 어디까지 왔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요즘, 고용 시장에서의 남녀 성평등은 어디쯤 와있을까요? 고용 부문에서 상대적 약자였던 여성,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및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의 고용 성평등을 이뤄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정리 편집부



고용상 성차별 해소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고용률 또는 여성관리자률이 동종산업·유사규모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선지도를 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여성고용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300인 이상의 지방공사·공단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불합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시행연도 대비 늘어난 여성 근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었던 총 2,064개사(공공 332개사, 지방공사·공단 43개사, 민간 1,689개사)의 2019년 여성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38.41%,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64%p, 10.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근로자 늘었어요! (제도 시행연도 대비)

7.64%
여성 근로자 비율

10.91%
여성 관리자 비율



민간기업보다 높은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을 사업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앞으로 공공기관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로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2%p,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로 1.38%p 각각 높았습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로 0.77%p 낮았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로 평균 대비 1.03%p 낮아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개 분류의 산업별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 반면,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모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

공공기관 > 민간기업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음식점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성 관리자 비율

공공기관 **남성** > 여성

음식점업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성 근로자 비율 높은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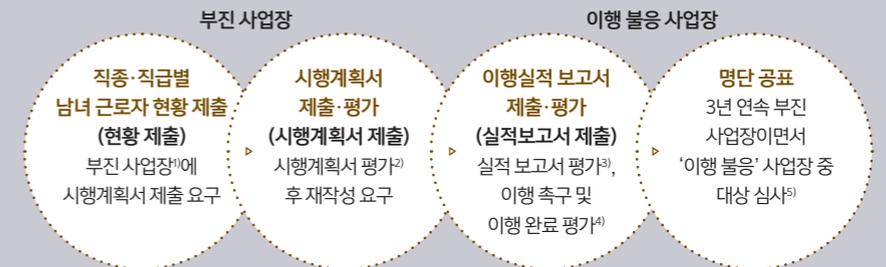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민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어떻게 조치될까?

앞으로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요, 해당 기업은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와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고 해당 계획서의 이행 실적이 평가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조사를 거쳐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 이전에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지원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단계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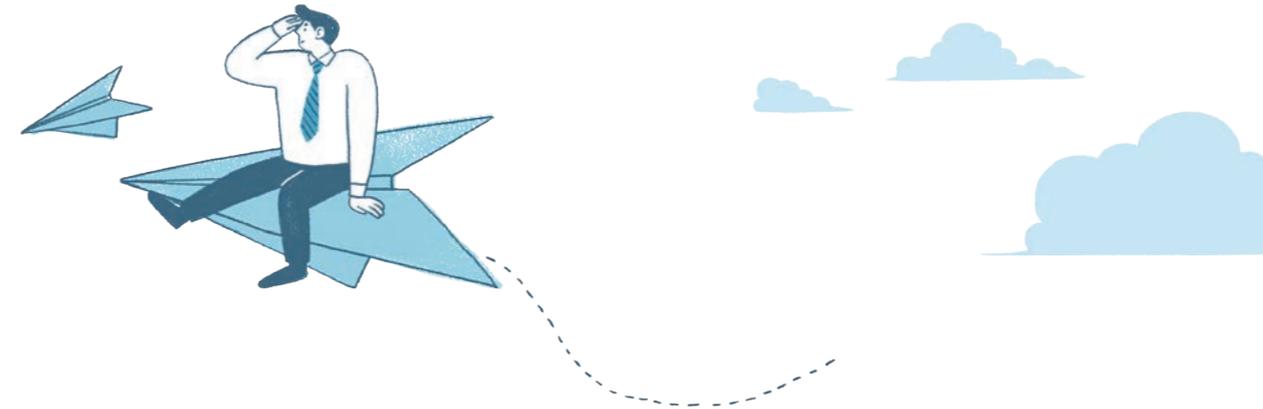
1) 30개 산업 및 1,000인 이상·미만 구분 후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
 2)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등 3등급
 3) 적정, 보통, 이행 촉구 등 3등급
 4) 이행 노력 인정, 이행 불응
 5) 제외 사업장 등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

경제적 부담 벗고 조금은 마음 편히 취업준비하게 됐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취업을 준비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고학력자의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구직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죠.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그 효과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정리 편집부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목표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대상 선정되었는데, 첫 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총 6만3,000여 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청년에게는 해당 지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지원금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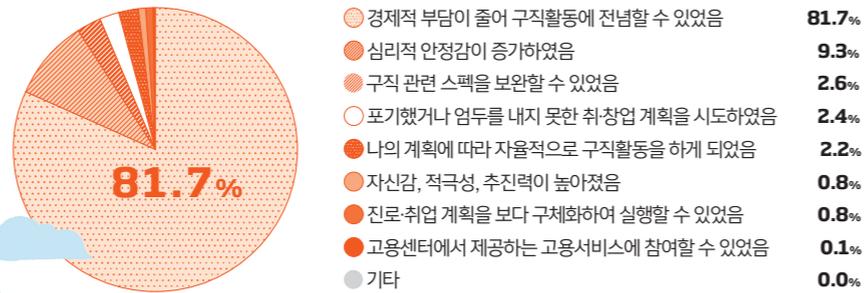
목표에 부합하는 긍정적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지급이 이뤄진 지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원금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했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지원금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구직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된 청년들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 6.3% 줄었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습니다.



구직활동의 시간과 횟수 증가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p 증가(89.2→97.5%)했습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역시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간 직·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평균 직·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습니다.

* 직접 구직활동: 입사 지원(서류 제출 등), 채용을 위한 면접 응시
 * 간접 구직활동: 토익·토플 등 외국어 시험 응시, 자기소개서·이력서·면접 관련 상담·컨설팅 참여, IT·컴퓨터 관련 교육,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등

구직활동 과정에 지원금 효율적 활용

약 3만2,000명인 1~3기 참여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해당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한 항목으로는 식비(58만2,983회, 33.3%), 소매유통(47만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만672회, 13.3%) 순이었습니다. 항목별로 1회 평균 사용한 금액은 1만6,000원으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1회 평균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만2,671원), 공간 대여비(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 순이었습니다. 생활비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금이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직업 훈련의 첫 걸음 'STEP'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직업훈련을!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개통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스텝(STEP)']」개통식을 11월 1일에 개최했습니다.

「스텝(STEP)」은 국민에게 다양한 전자 학습(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과 연계된 새로운 훈련방식의 도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훈련 기반으로 분야별 콘텐츠가 한 곳에 모이는 '콘텐츠 오픈 마켓'과 온라인 훈련의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관리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텐츠 오픈 마켓'은 가상현실(VR), 한입 크기(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 여러 유형의 전자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공간으로 훈련생들은 개인 컴퓨터(PC),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학습 콘텐츠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출석 점검, 과제-평가 자료 축적 등 훈련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훈련생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망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훈련 기관은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해 보다 편리하게 원격(온라인)훈련을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직업 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스텝(STEP)」을 활용해 국가 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 유형에 처음으로 혼합 훈련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재갑 장관은 “「스텝(STEP)」을 통해 누구나 질 좋은 콘텐츠로 편리하게 직업훈련을 받고, 전통적인 훈련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현장 중심 훈련'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스텝(STEP)」을 혁신 성장의 디딤돌, 내일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텝(STEP)」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 과정 목록과 다양한 유형의 전자 학습 콘텐츠는 공식 누리집(ste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속련 기술인 우대 위한 2019년 9월·10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



9월 (합)동양아이텍 고광만 대표, 10월 (주)피엔티 김준섭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 장비 개발·제조 분야의 전문 기술인인 (합)동양아이텍 고광만 대표를 2019년 9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반도체 부품 수리 및 설비 제조 분야의 전문 기술인인 (주)피엔티 김준섭 대표를 2019년 10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선정하고 있는 '이달의 기능 한국인' 제도는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속련 기술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로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속련 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11월 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올해 9월, 10월 기능 한국인 시상을 마친 후 수상자·가족·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설비 등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밝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9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고광만 대표와 10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김준섭 대표를 비롯한 가족 직원들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기술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므로 여러분의 성공 비법과 우수한 기술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어 기능 한국인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속련 기술인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
적극 행정 실천 다짐
정부 혁신 우수 사례 심사**



▶ 2019. 10. 8.
▶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박은경 사무관(044-202-7055)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최근 범정부적으로 힘써 추진하고 있는 ‘적극 행정’과 ‘정부 혁신’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 선정된 제2기 국민자문단과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블로그 청년기자단」, 「새내기 혁신 참견단」 등 고용노동 행정의 정책 고객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하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도 심사하였습니다. 이날 출범하는 국민자문단은 다양한 연령·직업·지역을 통틀어 총 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합니다.

국민자문단은 그간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던 관행을 벗어나 일반 국민 누구든지 칸막이 없는 참여, 상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처음 시도한 혁신 모임입니다. 올해에는 제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은행과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9. 10. 29.
▶ 문의: 개발협력지원팀
최혜은 사무관(044-202-7165)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주관하는 「2019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해운대(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능력 개발 혁신’을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 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하에서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협력하면서 상승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고용노동부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업무 협약 체결**



▶ 2019. 10. 30.
▶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사무관(044-202-7472)

고용노동부는 10월 30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마포구, 임실군, 강서구, 영주시, 인천 연수구, 울산 북구와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3개소(광주광역시·전주시·화성시)는 지난 5월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선정된 지자체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7개소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직장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주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첫 번째로 개원하여 운영 중인 강서구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앞으로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2센터」 오픈
전국 10개 성장지원센터
오픈 완료**



▶ 2019. 11. 1.
▶ 문의: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사무관(044-202-7430)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가 영등포에서 올해 마지막 문을 열고 각 지역에서 성장지원센터가 거둔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2센터」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2센터는 서울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는 열 번째로 문을 연 성장지원센터로 서울 서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근거지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센터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 공간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 기업들은 교육과 연계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관광 분야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입주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엄마의 밥상 차려드려요

정갈한 엄마표 반찬가게
(주)엔젤푸드



천사들이 먹는 천국의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MSG 짝짝 들어간 패스트푸드는 분명 아닐 테고, 그 맛이나 영양 면에서 단연 최고의 요리라고 상상하게 되는데요, (주)엔젤푸드는 지상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엄마들이 모여 저염식 반찬을 만들어 파는 온라인 반찬가게입니다.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엄마밥상을 내어놓는 (주)엔젤푸드를 만나봅니다.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



인천의 자그마한 반찬가게의 통 큰 복지

2014년 문을 연 (주)엔젤푸드는 5명의 엄마들이 의기투합하여 시작된 반찬가게입니다. (주)엔젤푸드를 이끌고 있는 송명숙 대표는 세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을 바꿔 쓰기 위해 맘 카페에서 만난 엄마들과 교류하던 중 싱글맘들이 처한 육아의 어려움, 엄마가 일터에 나간 후 혼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모습 등을 보고는 엄마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

기도 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엄마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반찬 만들기 아닐까 싶어 제안했고 5명의 엄마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엔젤푸드에는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싱글맘,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 등이 고루 함께 합니다. 엄마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가 있고 생일에는 생일 축하금도 지원합니다. 마사지권을 끊어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요일엔 조기 퇴근





이 있고, 출퇴근시간도 엄마들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 전화를 받지 않고, 점심시간도 철저히 지켜줍니다. 인천의 작은 반찬가게지만 지향하는 복지는 대기업 못지 않지요?

사회 경험 없는 엄마들의 좌충우돌 창업 도전

송명숙 대표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게 전부라 혼자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이어갔지만 경험이 없던 탓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업을 하던 엄마들의 꾸준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사회 경험 없는 여성들의 의지만으로는

운영이 너무 힘들었지요. 하루 12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구청에 도움을 청해 사회적기업을 소개받아 (주)엔젤푸드를 창업하게 되었고 창업 1년 6개월 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반찬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식재료 역시 저렴한 것들로 대충 쓸 수가 없었고 신선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선주문 후 조리 방식으로 매일 같이 전날 자정까지 주문 받은 음식을 당일 오전에 조리해 배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덧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해 카페 회원 4,000명, 온라인 쇼핑물 1,400명의 고객이 확보되었습니다. 열혈 단골들도 늘었지요. 좋은 음식이 감사하다며 가끔 들러 케이크며 꽃바구니 등을 놓고 가는 팬



도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럴 때면 모두들 맘이 흐뭇하고 뿌듯해져 다시금 의욕이 솟아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내리 전해지는 사랑과 나눔

현재 (주)엔젤푸드는 카페, 쇼핑물, 어플 등을 통해 온라인 반찬가게를 하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모사업으

로 올해 2월 시작한 영종도 엔젤키티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 중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리 강습도 진행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20곳에 반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 내 착한 기업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고 매년 행사를 열어 각 기업들의 후원 물품으로 스스로 판매한 수익금으로 또 다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의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가진 재능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이 강물이 되어 흘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니까요. 기업들 간의 협업으로 서로 돕다보면 또 다른 기업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 됩니다. 나눔의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Mini Interview



일할수록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어 보람 있어요
- 디자인 업무 정혜영 사원

‘내일배움’을 통해 디자인을 공부하고 (주)엔젤푸드에 취업한지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해볼 기회가 되어 흥미롭고 기획한 이벤트가 반응이 좋으면 보람도 있어요. 자꾸 더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가게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기쁨도 누리죠
- 관리부 백영순 팀장

엄마들이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정규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창립 멤버로 5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은 물론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좋습니다.

함께 가는 일터, 더불어 맞는 행복

광주 첨단종합병원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생직장 만들다

병원 업무 늘지만 인력 충원 어려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의 쌍암공원을 사이에 두고 광주 과학기술원과 마주하고 있는 광주 첨단종합병원은 2002년 11월 개원하여 광산구민뿐만 아니라 북구, 전남 담양군, 장성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입니다. 지역에 고령인구가 많은 관계로 노인환자가 많으며 교통사고 재활치료 환자 등도 많이 찾는 곳이지요. 하남공단에 위치한 대기업 공장 직원들의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병원의 업무는 늘지만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늘 고민이었다고 첨단종합병원 재무 박상욱 부장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방병원이 마찬가지로입니다. 번두리로 갈수록 간호사 등 병원의 전문 인력을 구하는 일이 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이직률이 증가하여 채용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등 고민이 컸습니다.”

기준 만들고 체계 갖추어 불만 해소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10여 개의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병원의 근무 특성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한

병원에서는 1년에 2번

직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경영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직장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첨단종합병원은 임금체계 개편 이후 이직률이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일하며 오래 다니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곳 광주 첨단종합병원을 찾아가 봅니다.

정리 한경희 사진 스튜디오



국능률협회에 임금체계 개선과 평가체계 개선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내부공정성과 결정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승진이나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직원들 각자의 사정과 편의를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는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업무량이 과도한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달라진 근무환경, 이직률 감소와 일·가정 양립

첨단종합병원은 올해 3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던 기존의 연공급 중심의 급여체계에 직무별 역량평가를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역량평가와 현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연봉제가 설계되었고, 지역사회 내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의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임금을 조율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직원들의 각 개인의 사정과 부서의 업무 상황을 맞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적정량의 업무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1년에 2번 직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경영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

악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경영상 무리가 없다면 이를 실행합니다.”

개원기념일에 우수사원을 표창하고 해외여행과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5, 7, 10년차에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직률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더불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는 첨단종합병원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 기대됩니다.



Mini Interview



박채린 간호부 책임간호사

어느덧 10년차가 됐네요. 그 동안 장기근속 포상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올해는 포상금으로 받았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에너지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김순옥 영양실 조리원

병원에서 근무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올 봄 베트남 다낭까지 다녀왔네요. 너무나 멋진 풍경 속에서 힐링 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종합 정보보호 전문기업 (주)사이버원



효용성 높은 워라밸 제도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직원의 요구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주)사이버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높은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문 분야라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지속하며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글 한경희 / 사진 스튜디오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워라밸 고민의 시작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정보 보안과 전산 시스템 안정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으로 업무 마비가 오거나 고객의 정보가 다량 유출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이버공격입니다. (주)사이버원은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종합정보보안기업입니다.

2005년 설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



사이버 보안 기업 직원 워라밸도 철통보안한다





는 3개 보안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5개 기업 중 한 곳이기도 하지요.

세계적으로 새로운 해킹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고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무수히 개발되면서 이 분야 직원들은 끊임 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사이버원의 모의 해커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인재 확보를 위한 고민으로 과감히 투자한 것이 직원들의 워라밸이었다고 인사팀 유준상 대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직이 많다보니 3년차 이상이 없었어요.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쟁사로 옮겨가는 것은 회사로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굳이 이직을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말이지요.”

개인 행복이 회사 행복으로 이어지는 원리

(주)사이버원의 워라밸 제도 중 하나는 2~3개월 장기간 별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2~3년이 되면 번아웃이 오곤 하는 직원들이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충분한 휴식 후에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데

요, 벌써 이 제도를 이용해 장기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도 여럿 생겼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급여가 없으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장기휴가를 떠났습니다. 회식 강요나 야근을 지양하고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등 자유로운 휴가, 휴직 사용으로 이직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Mini Interview

휴직 · 휴가 활용해

37개월 유럽여행

다녀왔어요

김재형

모의해킹부 팀장



특히 (주)사이버원은 남성 직원의 비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빠육아휴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저희 회사는 그 이전부터 아빠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켜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연차를 해당 년도에 모두 사용해야하지만 (주)사이버원은 그 다음해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해 연차로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의 여행이나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 휴가나 휴직으로 오는 업무 공백에 대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과 직장 업무 사이의 균형감, 휴식이 필요한 타이밍은 직원 본인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휴직기간을 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챙기니 업무의 효율도 높아졌다고 전하는 (주)사이버원 유준상 대리의 말 속에서 직원의 행복이 곧 기업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워라밸의 숨은 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결혼 전 아내의 버킷리스트였던 유럽여행을 위해 2개월 휴직과 1개월 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오래 일을 하다보면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데 장기간의 여행은 다시 마음에 여유를 주어 일할 의욕을 만들어 주지요.

시간이 생기니

딸 아이와

더 친해졌어요

신덕문

MSS사업본부 기획팀 차장



출퇴근시간을 조절해 딸아이의 등원도 돕고, 야근이 없으니 퇴근 후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루 일과를 정리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인 시간을 활용해 개발 중인데 내년에는 이걸 완성해 딸아이와 함께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123층 국내 최고(最高)의 자부심, 노사 한마음으로 이뤄내다

롯데물산(주)

맑은 날이면 서울 중심권 어디에서나 하늘로 뻗어오른 빌딩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이 555m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인데요, 이 빌딩 건축의 시행사로서 노사가 협력과 신뢰로 단합하여 123층 국내 최고 높이이자 세계 5위의 초고층 빌딩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롯데물산(주)을 찾아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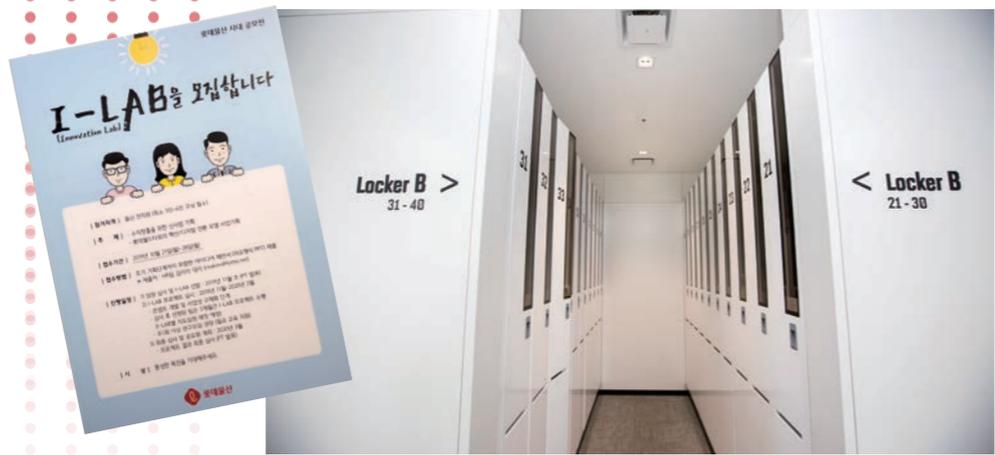
글 이지연 / 사진 스튜디오

노사관계 구축 위한 단계별 로드맵 설계

1982년 설립된 롯데물산(주)은 초고층빌딩 및 종합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대형 복합쇼핑몰인 롯데월드몰의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의 주목 속에 롯데월드타워를 세워 2017년 성공적으로 오픈한 롯데물산(주)은 그 과정에서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오픈 이후에도 노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우수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주) HR팀 유인식 팀장은 롯데월드타워 오픈과 함께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겨오며 더욱 단단한 노사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롯데물산(주)의 노사문화를 정의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설계하여 노사가 함께 실천해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우수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노사 관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롯데물산(주)의 노사문화를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전사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소통의 시간, 통쾌한Friday

롯데물산(주)은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SMART 물산', 2단계 '통쾌한Friday', 3단계 'SMART 물산2.0'이라는 로드맵에 따라 노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통쾌한Friday' 롯데물산(주)만의 전사소통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 임직원이 2시간씩 함께하는 ‘통쾌한Friday’는 다양한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전 임직원이 강당에 모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Acropolis Party’로 진행하고, 그 외에 업무혁신, 계층간 소통, 봉사활동, 소양교육 등으로 매주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사 간 소통이 활발해졌고 이제는 롯데물산(주)만의 고유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임직원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토론회, 사내공모전과 제안제도, 사내연구회제도 등 ‘통쾌한Friday’는 다양한 일터혁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혁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공유오피스’ 아이디어는 신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이름도 직원 아이디어에 따라 대회의실·소회의실 대신 월드룸·비전룸 등이 되었지요. ‘스마트제안’으로 두껍고 딱딱하던 결재판도 얇고 발랄해졌으며 ‘전자명패 설치’ 등도 사소하지만 업무효율이 향상되는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팀장 옆에 대리, 롯데그룹 최초 스마트오피스 도입

2017년 2월, 롯데물산(주)이 지금의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롯데그룹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직급 및 연공서열 순으로 앉는 기존의 자리 배치 대신 자율좌석제를 도입한 것도 수평적 소통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선호도를 반영하며 완성해갔는데요,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스마트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과 전혀 다른 근무환경과 ‘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들었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직접 만든 업무 공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

족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스마트오피스에서 업무 특성에 따라 원하는 근무공간을 선택하면서 기존보다 업무효율성 및 창의성이 증가하였고,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유연한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물산(주)은 대표이사와 대리급 이하 직원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공감콘서트’, 기존의 ‘업무혁신 토론회’를 발전시켜 직원이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노사가 함께 신사업을 기획하고 토론하는 ‘I-LAB’, 기존의 ‘소양교육’ 제도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이 직접 강사가 되어 원하는 주제로 강의하는 ‘지식in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노사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노사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 최고 높이의 빌딩을 세운 롯데물산(주)이 아주 작은 이슈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해결책이 아닌 노사가 함께 고민하며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해가기에 ‘20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라는 또 하나의 최고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Mini Interview



김혜정 대리
HR팀 인사노무 담당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큰 갈등 없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게 보람됩니다. 노사문화 담당자로서 롯데물산(주) 소통의 아이콘이 되어 이러한 노사문화를 잘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민수 대리
보안 및 대테러업무 총괄

함께드림(노사위원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며 근로자를 대신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4명의 근로자 대표가 8명으로 늘어났고 분기마다 진행하던 노사위원회는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노사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취업·일자리 박람회

12월에도 풍성하고 알찬 취업박람회가 구인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해의 마무리도 좋지만 다양한 박람회를 통해 취업정보와 교육은 물론 멘토링 등을 통해 더욱 값진 12월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편집부

2019 행복리턴 코레일 대구역 일자리 한마당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자리 취업 면접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데요, 지문적성검사, 신년도 정비결, 미용헤어 체험, 커피 바리스타 시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창업스타트 제품 홍보시연회와 플리마켓도 진행됩니다.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3:00~17:00
장소 대구역 3층 대합실
주최 행복인디제이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3:00~17:00
장소 대구역 3층 대합실
주최 행복인디제이

2019 시흥시 취업박람회



‘일하는 여성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시흥시에서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30개사 업체가 참여하는 채용관이 운영됩니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지문 적성검사, 타로카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어쿠스틱밴드 세자전거가 사전공연을 꾸밀 예정입니다.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3:30 ~ 16:30
장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체육관
주최 시흥종합일자리센터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3:30 ~ 16:30
장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체육관
주최 시흥종합일자리센터

2019 강서구 하반기 취업박람회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사업체)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2019 강서구 하반기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로 행사구성이 이뤄지며, 참여자들은 취업상담, 직업선호도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지문적성검사, 면접 이미지메이킹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참가방법은 행사 당일 신분증, 이력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4:00 ~ 16:00
장소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
주최 강서구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4:00 ~ 16:00
장소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
주최 강서구

2019 안양시 취업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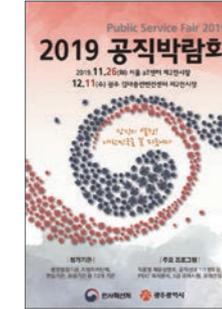


안양시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면접, 취업상담, 부대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구인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는 25개의 참가기업과 구직자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매칭이 성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4:00~16:00
장소 안양시청 홍보홀(민원실 2층)
주최 안양시 일자리센터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4:00~16:00
장소 안양시청 홍보홀(민원실 2층)
주최 안양시 일자리센터

공직박람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열립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52개 기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공직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종별 채용설명회, 공직선배 1:1멘토링, PSAT예제 풀이, 9급 모의시험, 모의면접이 이뤄집니다.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및 중소기업의실
주최 인사혁신처, 광주광역시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및 중소기업의실
주최 인사혁신처, 광주광역시

경기도일자리박람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장년(40~64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청년·고령자 구인업체도 참여하니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수원일자리센터의 주관으로 열리며 65개 업체(직접45/간접20)를 모집 중에 있어 연말을 맞아 구직·구인 중인 많은 도민과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 2019년 12월 16일 14:00~17:00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3층
주최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시 2019년 12월 16일 14:00~17:00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3층
주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복지수 높이고 건강한 삶 실현하는

개인서비스 분야 新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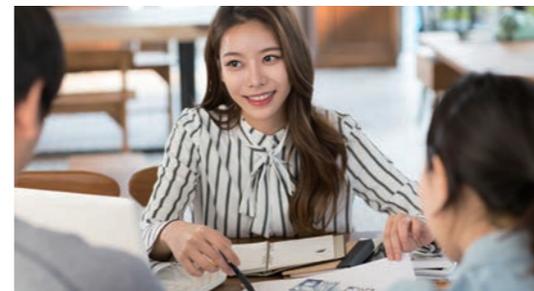
생활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도 전문가를 통해 얻는 효율성 높은 솔루션을 제안 받을 수 있는 날이 올텐데요, 나의 행복을 위해 전문가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개인서비스분야의 새로운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교육부 <미래직업 가이드북>)



식생활지도사

가정과 학교에서 바람직한 식생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대해 교육합니다. 학교급식 실천지도 강화를 통해 건강개선 및 성장발달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세대별로 바른 식생활 실천 가이드를 개발하여 제시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전통·향토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합니다.



여가생활상담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에게 조언하는 일에서부터 정년 후의 불안한 장래 문제까지 여가생활 전반을 상담합니다. 아울러 최근 여가생활에 대해 조언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직업입니다. 여가시간을 자기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각종 여가 및 레저정보를 제공합니다.



음악치료사

음악을 매개로 하여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진 환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환자의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내고 음악연주를 통해 나타나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평가합니다. 외국의 음악치료 분야 자격 취득이 있고 국내에는 음악치료학 석사학위 과정, 한국음악치료사협회의 치료사 자격 과정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전문상담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화장품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분별력을 높여주고 구매자의 피부,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사용 방법을 조언합니다.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박하나 음악치료사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쁨이 이끈 길

박하나님은 음악치료사로 9년째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명함에는 ‘사람을 살리는 음악치료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자신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적어놓았습니다. 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지만 음악수업에 기대가 없는 아이들을 보고 실망한 박하나님은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길로 잠시 방향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이 길로 이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사무실에서 잠시 일을 했어요. 하루는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선생님이 자신이 돌보는 중증장애인과 함께 그날 음악치료 수업을 다녀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분야를 알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함께 노래 부르던 음악시간이 좋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음악이 좋아 선택한 진로였기에 음악을 통해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질 수 있는 지금의 직업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한순간, 노래 흥얼거릴 수 있는 것은 행복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길과 협회를 통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있었는데 박하나님은 한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 강의를 들으

며 음악치료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실습은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수업으로 진행됐는데 울며 들어왔던 아이가 신나서 웃고, 무심한 듯했던 아이가 자신의 수업 시간을 기다리며 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박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함께 이 길이 자신의 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음악치료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하는 음악치료는 말을 못하던 아이를 갑자기 말할 수 있게 하거나 걸지 못했던 아이가 걷게 하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일상에 노래가 젖어두고 삶의 어느 순간에 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죠.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훨씬 더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일

박하나님은 지금까지 장애아동, 치매·학대피해노인, 군 부적응자, 학교 부적응 청소년, 재소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음악치료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겁도 없이 덜컥 현장에 나갔다는 박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빨리 현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즐기기에 이 일에 자신에게 잘 맞았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성악가처럼 잘해야 한다거나 악기를 전문연주자처럼 잘 다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악기 연주에만 집중한다

거나 너무 서툴러 몰입이 어려울 정도만 아니면 되죠. 음악치료사는 냉철한 사고와 함께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박하나님이 참여한 음악치료사 양성 과정



- 한국음악치료사협회 음악치료사 2급(90시간) > 1급(120시간) 자격과정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음악치료학 석사
- 장애아동·치매노인·학대피해노인 바우처 음악치료, 군부대 그린캠프, 법무부 인성교육 등 참여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자원노동법률사무소)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알바로 고용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연소근로자에게도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히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을 의미하는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도 당연히 근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회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헌법 제32조 제5항).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도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반드시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연소자는 아직 신체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므로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근무 장소와 관련해서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갯내(광산)에서의 근로가 금지되고(동법 제72조),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65조 제1항).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고압·잠수작업, 연소자에게 운전이나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업무, 교도소나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나 출입 금지 업종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이중 특히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 업종이 문제가 많이 되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를 포함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불리한 경우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이러한 보호 규정 이외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최저임금의 적용, 휴게시간·휴일 부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금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연소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위반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자의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는 더욱 더 철저히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올해 12월에 입사하여 2019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데,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월급이 자동 인상되나요?

최저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인 근로계약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당연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시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하므로 1인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동법 제3조 제1항),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동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동법 제7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계약 이후에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계약된 임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9년 8,350원보다 2.9%(240원) 인상된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79만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미리 인상하기로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4항).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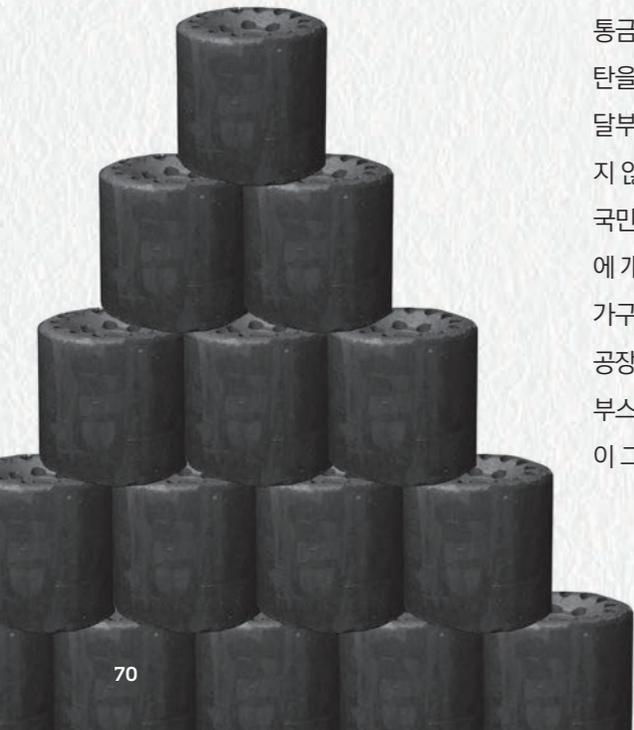
연 탄 배 달 부 의 그 때 그 시절

겨울이면 우리 부모님들은 밤사이 연탄불이 꺼질까 자다가도 몇 번씩 연탄난로를 살피곤 했습니다. 제 몸을 태워 집집마다 온기를 전하는 연탄불처럼 살을 에는 추위에도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비던 그 이름, 연탄배달부를 기억하시나요?

정리 편집부

국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꾼

통금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거리를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까만 연탄을 한 가득 담은 리어카를 끌고 “연탄이오”를 외치는 그는 바로 연탄배달부입니다. 1966년 정부는 한겨울 밤 연탄이 떨어진 주민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연탄배달부의 통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만큼 연탄배달부는 온 국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꾼이었지요. 산간지역을 제외한 도시에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수는 1986년 759만 가구, 연탄판매소는 2만 1,664곳에 달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지마다 연탄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일부 사정이 곤궁한 가정에서는 공장 주변을 돌며 부스러기를 모아 연탄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탄창고가 넉넉한 집이 그 동네에서는 가장 부자로 여겨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연탄사정은 시골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섬 지역은 사정이 더 나빠 22공탄 한 장에 85원을 받는 울릉도를 비롯하여 50원 이상인 곳이 흔하다. 당국에선 나무아궁이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떨감 마련도 전 같지 않아 겨울을 앞둔 농어민의 주름살은 늘어만 간다.

— 1935년 5월 23일 동아일보

우리 집 귀한 손님 연탄배달부

연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연탄을 배달하는 배달부의 존재도 귀했습니다. 1966년 정부가 연탄가격을 통제하면서 서민들은 겨울이 되기도 전에 미리 연탄을 확보하기 위해 월동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돈을 엮어주고서라도 연탄을 배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지요. 장당 80~100원의 연탄 값에 배달비 10원이 추가되었는데, 연탄배달부가 귀한 동네일수록 배달비도 비싸졌습니다. 더군다나 섬이나 산간지역에는 배달이 어려워 배달부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배달부들은 한 손에 집게로 4장씩 집어 총 8장, 28.8kg를 한 번에 들고 날랐습니다. 겨울의 초입부터 시작되는 성수기에는 배달원 한 명이 하루에 1,000장이 넘는 연탄을 나르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연탄배달부는 그만큼 체력과 인내력을 요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석유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지금도 매년 겨울이면 사랑의 연탄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절 직접 연탄을 이고 나르던 연탄배달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탄광이 줄어들면서 석탄 채탄 가격이 계속 올라 석유와 연탄의 난방 비용 수준이 비슷해졌고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진 탓입니다. 연탄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트럭을 이용해 한꺼번에 500장에서 1,000장의 배달만 하는 연탄배달 가게가 과거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던 연탄배달부의 발자취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도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밤늦도록 연탄을 나르던 그 시절 연탄배달부의 마음을 담아 올 겨울도 모두 따뜻하고 풍족한 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뭘 좀 아는 직장인의 연말연시 여행법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보자’는 약속들이 연거푸 계속되는 요즘. 그래서 연말연시는 정작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리 편집부

체험

추위에 맞선 생명들과의 만남



겨울 낚시
VS
철새 관광



겨울 낚시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는 1월 4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겨울 낚시는 물론 눈 조각상, 눈썰매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낚은 산천어를 즉석에서 튀김이나 찜감으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편, 화천에서 멀지 않은 철원은 철새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땅 속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물 덕분에 먹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와 제203호 재두루미를 보고 싶다면 철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화천 산천어 축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화천 산천어 축제장)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일대

여행

아듀 2019, 웰컴 2020을 찾아서



군산 고군산군도

VS

옥천 용암사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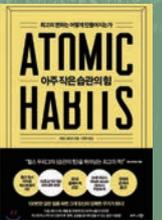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



트렌드 코리아 2020

VS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2월 마지막 날 자정은 떠나가는 해를 배웅해야 할지 다가오는 새해를 마중해야 할지 헷갈리는 시간입니다. 이럴 땐 노선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 어떨까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싶다면 일몰이 으뜸인 군산 고군산군도, 희망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일출이 장관을 이루는 옥천 용암사가 제격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는 시뻐건 석양이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새만금방조제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반면 옥천 용암사는 떠오르는 태양이 운해를 만나 장관을 이룹니다. CNN이 한국의 일출 명소로 손꼽을 만큼 그야말로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옥천 용암사
충북 옥천군 옥전을 삼정리 산51-1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의 6명 지음 / 미래의 창 펴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 비즈니스북스 펴냄

올해를 간파한 단어가 ‘복고’였다면 2020년을 꿰뚫어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020년 소비 트렌드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것인데요. 다가오는 2020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해 소비자의 심리부터 면밀히 따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조금씩 시도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365일을 만들어 주는 ‘새로운 습관’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장시간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수면장애는 매우 흔한 건강문제로서 특히 야근이 잦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수면장애가 아닌 경우 그냥 지내거나, 주말 늦잠으로 잠을 보충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장애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 장태원(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밤에 깨어 있으면 정상적인 생체리듬이 방해를 받고, 낮에 잠을 자려고 해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일을 할 때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며 잠을 자려고 할 때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휴일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졸리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졸리고 피로한 증상과 불면증상 외에도 여러 증상을 유발합니다. 일을 할 때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오랫동안 뒤척여도 잠을 이룰 수 없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며, 깬 이후에는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긴 시간을 자더라도 충분히 잤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대근무 후 낮에 잘 때뿐만 아니라 휴일 밤에도 유사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초조하고, 가벼운 일에도 짜증이 나며, 불안감도 자주 발생합니다. 즉,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피로와 불면증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주말에 일부러 늦잠을 자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이는 수면장애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수면장애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는 동안 선글라스 등으로 최대한 빛을 차단하고, 귀가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4~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오후에 활동을 하다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기 전에 2시간 정도 미리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근무 출근 전에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은 근무 중 집중도를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과도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야간근무 후에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2~3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오후에 활동을 하다가 밤에 평소 자던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장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1. 잠자리(침대)에서는 자는 것 이외의 활동(독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은 하지 않는다.
2. 침실은 조용하게 하고, 암막커튼 등으로 빛을 최대한 차단한다.
3. 잠들기 1시간 이내에는 과식을 피하고, 술이나 담배, 커피, 콜라 등은 피한다.
4.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대한 정리하고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5.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자기 1시간 이내에는 과도한 운동은 피한다.



수면장애의 치료

수면장애의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면장애 증상이 심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한 호르몬이며, 해가 쬐서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이 되어 밝아지면 멈추고 낮에는 최소한의 농도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밤에 일을 하면 환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고, 낮에 침실에 빛을 차단하더라도 생체리듬이 맞지 않아서 역시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즉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교대근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하면 수면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는 수면장애가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을 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불안이나 우울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수면장애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와 같은 동반질환이 있으면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연말정산 파헤치기



연말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컨대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헛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리 편집부

연말정산 그것이 궁금하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댄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정산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죠.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니 특정한 지출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큼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 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목!

-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 절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세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가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주세요.
- 2 월세 납부자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12%,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 3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주세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로 이용해 구매하면 무려 구매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그밖에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사용액 40%까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올해 변경되는 사항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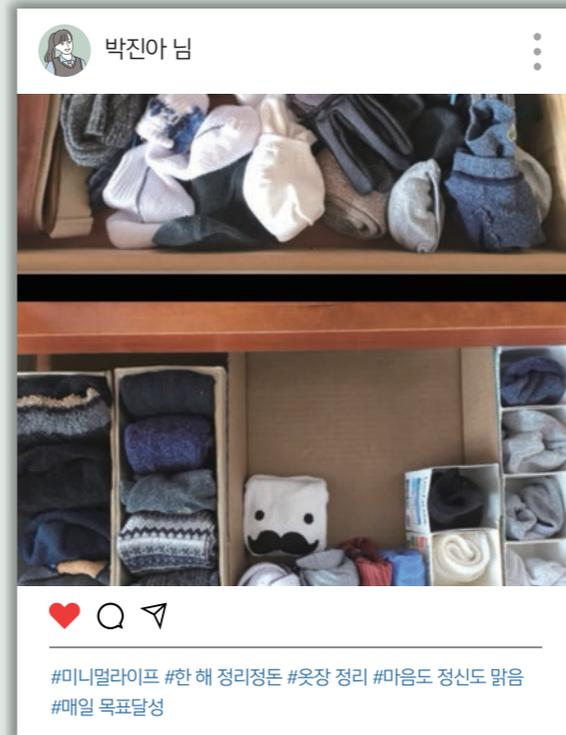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의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성실하게 채워간 나의 2019년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신년의 결심은 이루셨나요?
 새해 다짐은 얼마만큼 실천하셨나요?
 그 결과가 어떠한건 토닥토닥,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채워간 여러분의 2019년을
 여기에서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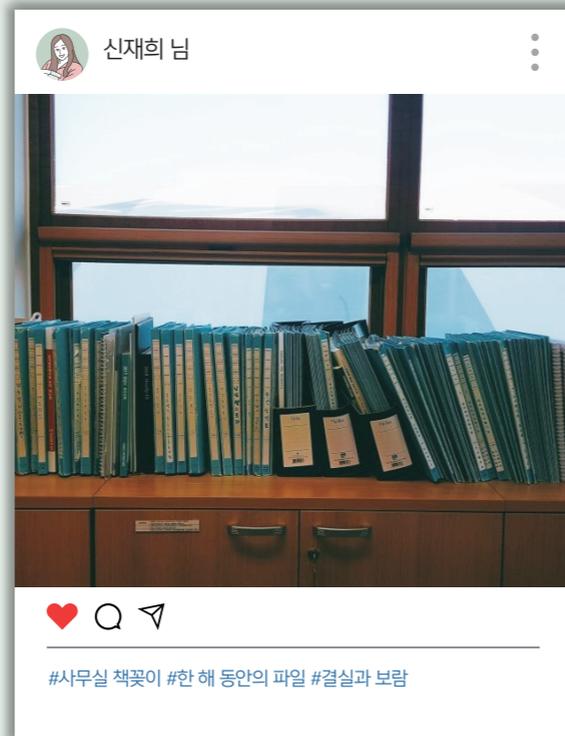
#신년계획 다이어트 #운동과 식단조절 #자기관리
#다이어트는 평생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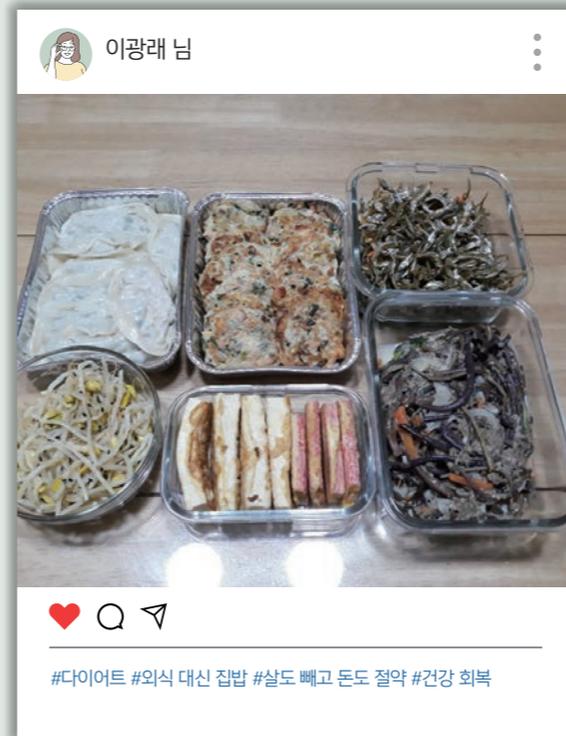
#미니멀라이프 #한 해 정리정돈 #옷장 정리 #마음도 정신도 맑음
#매일 목표달성



#그레타 툰베리 #다음 세대의 환경 #한 달 우유팩 500개
#환경사랑 장터 #휴지 교환



#사무실 책꽂이 #한 해 동안의 파일 #결실과 보람



#다이어트 #외식 대신 집밥 #살도 빼고 돈도 절약 #건강 회복

1월호 주제

2020년 나를 바꾸기 위해 준비한 이것은?

2020년 한 해를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 새해, 새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새 다이어리, 업무용 캘린더, 퇴근 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 러닝화 등 나의 신년계획과 관련 준비물도 좋습니다.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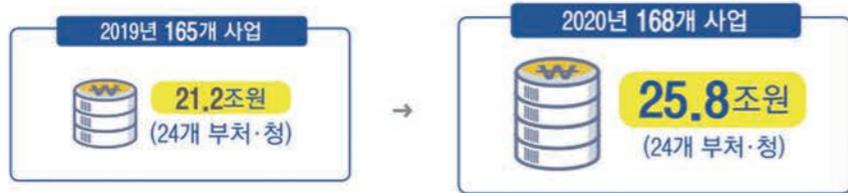
- 12월호에서 1월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찰칵 사진을 찍는다.
-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한다. moel2019@naver.com
-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발해 다음호 지면에 공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의 힘 **2020** 일자리 사업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예산규모



유형별

고용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프로그램 +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 현장수요 맞춤형 훈련 신규 4,800명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400 → 1,700명
- 국민내일배움카드 48.2만명

고용안전망 (실업소득)

- 실업급여 강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 30일 연장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만명 → 2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25만명 → 35만명

여성

- 모성보호 육아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 2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5일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중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규 1.1만명)
 - (지원수준) 1인당 월 30만원
- 신중년 경력형·사회공헌 일자리
 - 1.25만명 → 2만명

장애인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신규 설립
- 장애인 고용장려금

	여성	남성
중증	60 → 80만원	50 → 60만원
경증	40 → 45만원	30만원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최대} 주 52시간



준비가 어렵다면? 현장지원단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온라인 www.moel.go.kr/52-hour.do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

Quiz

11월호 퀴즈 정답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11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 권선미(경기도 용인시)
- 김호기(경남 거제시)
- 모한나(인천시 부평구)
- 유종숙(서울시 송파구)
- 이준임(경기도 의정부시)
- 이화연(경기도 용인시)
- 임재문(서울시 양천구)
- 전경욱(충북 충주시)
- 조향(서울시 강서구)
- 황선갑(대구시 수성구)

월간 <내일> 12월호 퀴즈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 후 해외취업까지 연계하는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으로 해외취업 희망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직무능력, 생활·문화·교육 등 맞춤형 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힌트 1. □-□□□□스쿨(영문 알파벳으로 다섯 글자)
- 힌트 2. 지금 바로 12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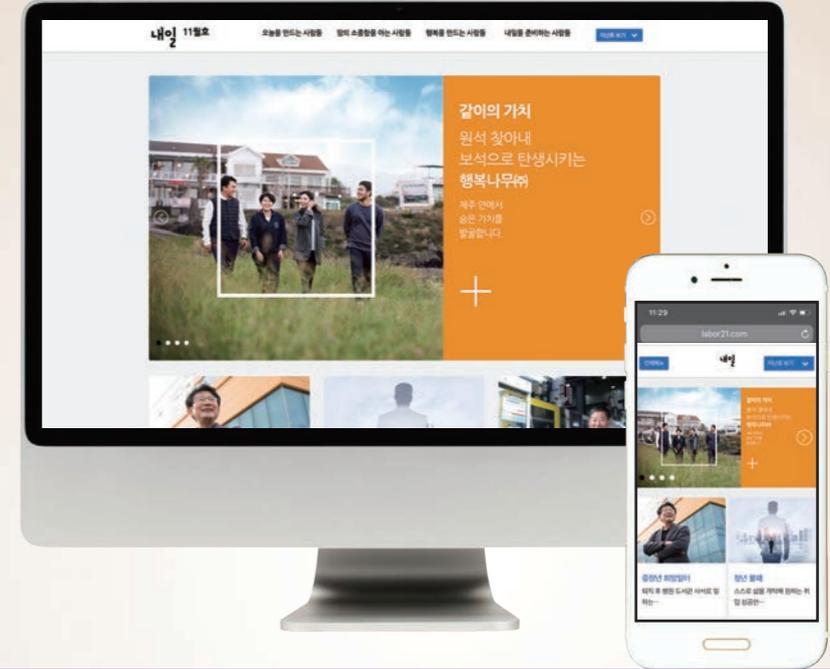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연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2. 웹진(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